



제 42회 장애인의 날

2022년
4월 20일

Issue No. 001

장애인의 날
왜 지정했나

알아두면 쓸데있는
지식창고



다양한 체험
교내 행사
안내



① 4월 20일을 기념하는 이유

장애인의 날 왜 지정했나요?

2022년 4월 20일은
제 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 정부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에,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여담으로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장애인의 날 유래

1981년 유엔은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했다. 이 후 각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 권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4월 20일 [제 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월 20일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 되었다.

한컷만화



모두가 행복한 세상 보건복지부 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함께 합니다

BOOKS

마음의 양식 도서추천



Book

- 가방 들어주는 아이 고정욱
- 헬렌 켈러 정은미
- 나의 눈이 너의 눈이야 루스 윌록스
- 이상하게 아프지도 않은 아이 김예원
-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 로저 올모스
- 그냥 내 친구니까 플로랑스 지벨레드 레스파네이

Writer

알아두면 쓸데있는 지식 참고



장애인? 장애우? 헷갈리는 용어 바르게 사용하기

장애우 대신 장애인

벗 우(友)자를 쓰는 장애우는 들여다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오히려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장애인 자신을 지칭할 때는 힘들기 때문이죠. 장애우 대신 장애인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호칭은 <이름>으로 부르기!

장애인의 잘못된 인식은 반대말인 정상인이라 부르는 것에서 출발 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정상인 대신 비장애인

청각 장애인의 말, 수어

수어의 자음과 모음을 알아보자



사랑해요.



교내 행사 안내

1. 장애인의 날 기념 전시회

여기로 들어가세요 ↓

여러분을 장애인의 날 기념 온라인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전시관 안에 많은 작품들을 전시해놓았어요.

장애인들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도 있고…

과연 어떤 작품을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즐거운 관람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2. 서로 달라서 아름다운, 다름다운 꽃밭

<서로 달라서 아름다운 우리: 다름다움>

1. 다름다움 안내장을 읽어주세요.
2.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꽃을 색칠해주세요.
3. 꽃 모양을 따라 잘라주세요.
4. 자른 꽃을 중앙현관 '다름다운 함'에 넣어주면 끝!

★ 기간: 4월 18일(월) ~ 4월 22일(금)

★ 장소: 중앙현관 '다름다운 함'

★ 참여한 학생에게는 작은 선물을 줄게요 :)



3. 제 24회 전국 장애인식개선 벽일장 참가

주제 이음, 하나로 이어진 우리

-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학교생활이 되려면?
- 장애를 가진 친구와 생활하면서 느낀 점
-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하며 발견한 장점
-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한 나의 작은 실천
- 나눔을 통한 즐거운 학교생활

응모부문

- 시: 200자 원고지 8매 내외 2편 이내
- 산문: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1편
- 독후감: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1편
- 방송소감문: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1편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2022 대한민국 1교시' 청취 후 소감 응모)

응모기간 2022. 4. 4.(월) ~ 5. 16.(월) 도착분까지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글을 참고하여 개인출품 해주세요.